

“섬진강케이블카, 구례 관광객 1000만 시대 출발점”

군, 7일 오산권역 케이블카 하부정류장 부지서 기공식
사업비 500억·길이 2.34km 규모...민·관 협력 프로젝트도

구례군이 천혜의 자연관광자원인 섬진강을 기반으로 ‘관광 매개’ 도약에 나선다. 3일 구례군에 따르면 오는 7일 오후 2시 오산권역 섬진강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본지에서 구례 섬진강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기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공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권향업 국회의원, 김순호 구례군수를 비롯해 주요 내빈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섬진

강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출발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구례 섬진강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오산정상(해발 542m)과 섬진강 일원을 연결하는 대규모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군이 민간사업자인 ㈜다우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 중인 핵심 관광 프로젝트다. 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

역량을 집중해 왔다. 지난 2022년 3월 구례군과 ㈜다우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2024년 11월 전남도로부터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를 완료했으며, 2025년 1월에는 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를 마쳤다. 이러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함에 따라 이번 기공식을 개최하게 됐다. 구례 섬진강케이블카 길이는 2.34km(사성암 하부정류장~상부정류장), 약 5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오산권역 일원에서는 구례 섬진강케이블카를 중심으로 약 2000억원 규모의 민·관 협력 관광 프로젝

트가 추진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까지 총 9개 사업에 722억 원을 투자해 섬진강 힐링생태공원 등 4개 사업(188억원)을 이미 준공했으며, 섬진강 보도교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다. 군은 이를 통해 오산권역을 구례군 관광의 중심지이자 대표 관광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구례 섬진강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구례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며 “이번 기공식이 구례군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ikkin@gwangnam.co.kr



구례군은 구례 섬진강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기공식을 오는 7일 오후 2시 오산권역 섬진강케이블카 하부정류장 부지에서 개최한다. 사진은 구례 섬진강케이블카 조감도.



순천만잡월드에서 가족 단위 체험객들이 겨울방학 이벤트를 즐기고 있다.

순천만잡월드, 아이들 웃음 ‘한가득’

체험·공연·보물찾기 등 대모험 인기몰이

순천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20일까지 순천만잡월드에서 운영 중인 ‘겨울방학 대모험! 꿈 보물찾기’ 이벤트에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만들기 체험

과 공연, 보물찾기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도록 구성. 방학 기간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려는 가족 방문객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똑딱

똑딱 공작소’에서는 4D프레임을 활용한 자전거와 자동차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고 있다. 직접 조립하고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어, 체험 연령은 활기찬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은 ‘꿈 보물찾기’ 미션으로, 체험관 곳곳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놀이와 탐험의 재미를 동

시에 느낄 수 있어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잡월드를 찾은 체험객들은 인근 순천로봇교육과학관까지 방문하며 체험을 이어가고 있다. 로봇교육과학관에서는 레이저 각인·화기 로봇 등 15종의 로봇 체험 프로그램과 ‘프리즘 코어를 찾아라’ 로봇 공연을 운영하고 있으며, 로봇 카페를 통해 아이스크림과 커피를 제공하며 체험객들에게 실생활 속 로봇 서비스를 체험하는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순천=박철석 기자

여수, 인센티브 확대 등 MICE 유치 총력 기업 포상관광 신설 등 유니크메뉴 연계 강화

여수시가 2026년 MICE 개최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MICE 행사 유치에 나섰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에서 개최되는 MICE 행사를 주최·주관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내 회의는 최대 2000만원, 국제회의는 최대 25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기업 인센티브(포상관광) 부분을 새롭게 신설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기업 연수와 포상여행 등 다양한 형태의 수요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여수시 MICE 산업의 성장과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수시는 기존 유니크메뉴 6개소(스카이트워, 아쿠아플라넷 여수, 모이핀, 예울마루, 거북선호, 갯고을마을)에 5개소(오동재, 녹테마레, 여수시청년지원센터, 담쟁이교육·치유농장, 고마리주식회사)를 추가 지

정해 가산금 지원 범위를 총 11개소로 확대한다. 시는 올해 민·관 합동 MICE 유치설명회, 해외 온라인 유치설명회, 팸투어 등 국내·외 MICE 행사 유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2026년 MICE 인센티브 확대와 신규 사업 추진을 통해 여수를 찾는 MICE 수요를 더욱 늘리고, 이색 지역 명소 활성화를 통해 여수만의 차별화된 MICE 브랜드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약 1200건의 MICE 행사를 유치해 25만4000여명의 방문객을 유치했으며 약 895억원의 지역 경제 효과를 창출하며 ‘남해안권 마이스(MICE) 거점도시 여수’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여수시가 2026년 MICE 개최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MICE 행사 유치에 나섰다. 사진은 여수시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시상식에서 MICE 산업도시 3년 연속 대상을 받은 모습.

고흥, 관광 100만 시대 행정 역량 강화 ‘온힘’

철도여행 홍보·축제 콘텐츠 고도화 논의

고흥군은 최근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 2026 관광업무 정책 공유 워크숍을 개최하고, 관광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공유·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고흥관광 100만 시대’ 실현을 목표로 관광 현장과 행정을 연결하는 실무 중심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군 및 읍·면 관광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관광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워크숍에 앞서 이두사 강사의 ‘해의 관광사례와 트렌드로 본 고흥형 관광행정 전략’ 특강을 마련해, 포르투갈 사례를 중심으로 관광 인식 전환과 고흥형 관광객 확대 마인드 구축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에서는 관광정책 추진 방향과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실무 협의가 진행됐다.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철도여행

상품 홍보, 대표 축제 콘텐츠 고도화, 읍·면 관광자원 발굴, 관광시설 환경 개선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부서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관광정책을 현장 실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계기가 됐다”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책 완성도를 높이고 관광객과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관광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주요 관광지 입장료 지원, 여수사랑상품권 환원 정책, 우수철도 999 철도여행 상품 운영,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블루마린 자전거 여행상품 브랜드화, 지속 가능한 고흥관광 환경 조성 등 관광 콘텐츠 개발과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대를 통해 2028년까지 관광객 1000만 시대 달성을 목표로 관광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광양만권 3개 시 인구 2년 연속 60만명대 그쳐

여수·순천·광양, 지난해 69만4035명...전년보다 4802명 감소
석유화학·철강산업 불황 주요 원인...“광양만권 협력 강화”

여수·순천·광양 등 광양만권 3개 시 지역의 인구가 2년 연속 60만명대에 머물렀다. 3일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 등에 따르면 여수·순천·광양 등 광양만권 3개 시 지역의 지난해 인구 수는 69만4035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4년(69만8837명) 보다

4802명 줄어든 규모로, 70만명을 상회했던 지난 2023년(70만2499명) 이후 2년 연속 60만명대에 그치며 인구감소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하나의 생활·경제권을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한 광양만권은 지난 2016년 72만3116명에 달했지만 매년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지난 2024년 70만명

대가 붕괴됐다. 3개 시 가운데 광양시는 인구 증가가 이뤄진 반면 여수시와 순천시 인구가 줄면서 인구 감소세가 지속됐다. 광양시는 2023년 15만2666명에서 지난해 15만5259명으로 2년 간 2593명이 증가했지만, 이 기간 여수시는 8412명, 순천시는 2635명 각각 감소했다. 철강과 석유화학단지가 입주해 있고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울촌산단 등지에 기업 유치가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인구자

연감소에 따른 원인이 있지만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극심한 불황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광규 광양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광양만권의 인구는 철강산업 부진과 석유화학 경기 침체로 당분간 인구 감소현상은 지속 될 전망이다”며 “광양만권의 발전과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는 여수·순천·광양이 협력해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ikkin@gwangnam.co.kr

장흥, 산림재난 대응체계 본격 가동

45명 산림재난대응단 발대

장흥군은 최근 목재산업지원센터에서 산불과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대응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김성 군수, 산림재난대응단원들이 참석해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지역 산림과 군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올해 산림재난 대응 인력은 총 45명으로, 산불 예방 활동을 비롯해 산불 진화,

산림병해충 방제, 산사태 예방·현장 대응 등을 수행한다. 군은 봄철 산불 등 산림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맞아,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한편, 관계 인력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산림재난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성 군수는 “산림재난은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대비 태세로 산림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구례, 올해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

상·하반기 각각 1인당 60만원 지급

구례군은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올해 2회에 걸쳐 60만원을 지급한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각 한차례씩 시행된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2~5월, 하반기 신청기간은 9~12월이다. 군은 오는 10일까지 집중지급 기간으로 정하고 ‘마을로 찾아가는 서비스’의 하나로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지급하게 된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농어촌 소멸 위기와 도농 간 성장 불균형을 완화하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며 “기본소득사업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향후 기본 소득 정책의 확대, 고도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구례=김귀진 기자 ikkin@gwangnam.co.kr